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4호

2023.04.05(수) 20:00 ZOOM
체육시민연대 제3차 집행위원회 개최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코로나발 체력 저하 회복 본격화...학교체육 활성화에 528억 지원 |

양새롬 NEWS1 기자

핫플 핫플 서울 유아스포츠단

서울시, 3~5살 스포츠 지원 자치구 14개로 늘린다

손지민 한겨레 기자

인천광역시 장애인 선수 인권실태조사

“수영선수 이외 폭행 또 있나”...인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실태 조사

박준철 경향신문 기자

미국 교육부, 차별 방지책 추진...

미 정부, 성전환 선수 여성팀 활동 전면금지 움직임에 ‘제동’

최인영 연합뉴스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사우디아라비아, 게임 및 e스포츠 사업에 약 50조원 투자

김창훈 게임뷰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코로나발 체력 저하 회복 본격화... 학교체육 활성화에 528억 지원

교육부가 예산 약 500억원을 투입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2차 학교체육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추진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배려민턴 등 148종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또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생존수영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인적·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4배 수준인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수 확대 △체육온활동 도입 등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체력향상 프로그램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강화, 교원·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지속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향후 5년(2024~2028) 동안 적용될 '제3차 학교체육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재 사교육대책팀을 꾸려 사교육비 경감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세우고 있다"면서 "(학교체육 활성화와 같은) 실효성있는 개별 방안을 연중 지속 발굴하고 선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3~5살 스포츠 지원 자치구 14개로 늘린다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민간 체육시설이 함께 진행해온 3~5살 유아들의 무료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6일 지난해 7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햇돌햇돌서울 유아스포츠단'을 올해 14개 자치구로 늘리고, 유아 480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660명의 유아가 참여해 수영, 농구 등 매주 1~2회씩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서울시는 유아스포츠단을 통해 체육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우관계와 사회성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유아스포츠단은 올해 풋살, 수영, 음악줄넘기, 농구, 클라이밍, 태권도, 합기도, 발레, 탁구, 유아체육 10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와 협력해 유아스포츠단에 참가하는 유아의 체력 측정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기본적인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및 순발력, 민첩성, 협응력 등 유아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유아들이 스포츠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영선수 이외 폭행 또 있나”... 인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실태 조사

인천시가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실태 파악에 나선다.

인천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인천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뀌어야 할 것을 찾아내 개선하는 게 목표이다. 또한 향후 인천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수영과 축구 등 48개 종목에 장애인 체육선수는 600여명, 지도자는 80여명 있다.

앞서 지난달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감독과 코치 등 4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전 감독과 코치들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고, 월차레도 시켰다. 또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부당이득도 챙겼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분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권고가 있었던 분야인 만큼, 꼭 필요한 연구”라며 “이번 연구에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 성전환 선수 여성팀 활동 전면금지 움직임에 '제동'

YONHAP NEWS

미국 연방 정부가 성전환 학생 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6일(현지시간) 공립 학교나 대학이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성전환 여학생 선수가 학교 스포츠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험을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정책이 3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조항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전환자나 여성·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나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학교 스포츠에 적용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안한 정책 설명서를 보면, 학교에서 스포츠 참여 제한은 스포츠의 특성과 경쟁의 강도,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 정체성에 맞는 팀에서 학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강도가 더 센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스포츠 팀은 제한 기준을 둘 수 있다. 또 학교들은 공정성이나 부상 위험 감소 등 '중요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부 성 관련 제한 기준을 둘 수 있다. 제한 기준을 두는 학교들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공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성 관련 제한을 뒀다면 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12세 성전환 소녀 베키 페퍼-잭슨이 중학교 여성 육상·크로스컨트리팀에서 계속 뛰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중·고등·대학교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전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 집 저스티스 주지사가 2021년 이 법에 서명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이 법 시행을 금지하라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AP 통신은 이러한 정책이 성전환 학생 선수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살 것이며, 최종적으로 승인되기까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이 정권을 잡은 주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전환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선수보다 경쟁에서 유리하다며 성전환 선수의 참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지난 5일 미국 캔자스주 상·하원은 성전환을 한 학생 운동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올해 여름부터 금지하는 이른바 '여성 스포츠 평등법'을 통과시켰다. 7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에는 출생 시 남성이었던 운동선수의 여성부, 소년부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 게임 및 e스포츠 사업에 약 50조원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게임 산업에 380억 달러(약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외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에 대한 투자, 게임 업체 지분 투자, e스포츠 경기장 건설, e스포츠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산업 중에는 게임과 e스포츠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는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게임과 e스포츠의 허브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닌텐도,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다양한 게임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산하 기업인 새비 게임스 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e스포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새비 게임스 그룹의 자회사인 Nine66는 한국 게임 업체 위메이드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외신 블룸버그는 새비 게임스 그룹의 브라이언 워드 대표를 인터뷰했다. 브라이언 워드 대표는 과거에 액티비전과 EA에서 근무했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형 게임 업체와 만났다. 그리고 새비 게임스 그룹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에 380억 달러(약 50조 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최근까지는 e스포츠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e스포츠 경기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게임 개발과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새비 게임스 그룹의 임무 중 하나는 다른 게임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가 한국 게임 업체 시프트업을 방문해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자체 개발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새비 게임스 그룹의 자회사 중에는 약 1년 전에 설립된 게임 개발사도 있다. 먼저 모바일 게임 개발을 경험하고, 콘솔 게임으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브라이언 워드 대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을 최고의 개발사로 육성하는 것이지만, 게임 개발사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와 교육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기술적인 격차가 크다. 이런 격차를 좁히려는 국가적인 투자와 정책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인 활동에는 걸림돌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재나 인권 관련 논란에 종종 휘말리는 국가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투자와 활동은 몇몇 중동 국가가 했던 '스포츠를 통해 국가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른바 '스포츠 워싱')와 비슷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과 e스포츠도 전통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산업이다. 그렇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도덕적인 문제가 그들의 활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 대형 게임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려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워드 대표는 "이런 비판은 게임과 e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주제라서 다소 당혹스럽다"라며 "새비 게임스 그룹은 성소수자나 유대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 이미 우리 경영진에는 여성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다"라고 밝혔다.

주간 스포츠 소식

[송기원 칼럼] 스포츠가 불편한 까닭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31>

협회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필요"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3582>

강원스포츠과학센터·학생스포츠센터 지역 인재육성 협약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7803>

대림스포츠산업, 괴산지구대에 운동기구 3종세트 증정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080>

전국 최대 규모 '강남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개장 [TF사진관]

<http://news.tf.co.kr/read/photomovie/2010221.htm>

장수군,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구축 박차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6878>

대구경북체육회 친선 해외스포츠 교류 재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6984&ref=A>

대한체육회 신입 채용 "스포츠 열정 가득한 인재 오세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924767>

건강체력평가 초1~4학년 확대 검토...학교스포츠클럽도 늘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0050800530?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